

김학동 편 『오장학 전집』, 국학연구원, 2003

제1부\_詩部

戰爭

— 銃이 웃는 것은, 戰爭 自身이 詩人이기 때문이다.

宣戰布告

~~~~~가 나고 나

어린애 키우는 집의 강아지같은 詩人.

戰爭의 株券을 팔고사는 古典的이 못되는 實業家.

박쥐의 노래. 卽. 쥐의 노래.

JERNFFA~~~~~

지게미. 턱지끼. 消化物. 과. 等等.

家畜들의 理想村.

아기!

너의들의 싸움은 어른에게 따귀맞겐 마를 것이 없단다아.

아기아아아,

너, 그런 짓하다 손버힐나.

電波~~~~~

電波에 못어오는 雜音. 雜音.

~~~~~

~~~~~

트 르르르

트, 트,

裝甲自動車에 업혀가는 탱크.

싸이드·카—를 타고나온 機關銃.

自走式 高射砲.

水陸兼用的 戰車.

유니폼—을 가리(간아)입은 選手들은 피스들의 信號를 기다리며

스타—트의 線을 도적질한다.

칼과 칼의 불같은 사랑.

불같은 抱擁.

《이게 圖書館을 갈거 먹는 歷史家は 白紙의 處女性을 蹂躪

(蹂躪)할 것이다.》

(第一情報)

나비는 薔薇가시에 달애를 찢니여 호득였든 것이다.

號外!

—病든 말. 발을 지는 配達夫.

방울을 흔드는 것은 安全地帶의 新戰法이다.

號外!

古木에 달나부터 敵狀을 偵察하는 潛望鏡.  
眼鏡照準器를 裝置한 最新式小銃.

夕刊. 今日號外 一次發行. 本紙不再錄.

定價 一部五錢.

「수숫대가 쓰러지며 허수아비의 뺨을 갈것다.」

—第二電通—

自殺未遂

—靑色少年의 遺書.

「젊은 사람아!

所有權,

所有權!

너의들은 所有權의 偉大함을 모르느냐?  
《너는 길거리에 달너 던이는 가랑뉘이라도 주어보아라!》

權利!

權利.

權利의 六條目.

언청아!

너는 그년이 사랑하지 안트라도 계집을 삼아라.

朝刊 第一面.

「참새가 太平洋 航路를 뚫두로 그리고 軍營을 脫走하였다.」

—第七電通—

有力한 肥料會社들의 非公式的 轉向.

나의 아저씨는 新聞을 본다.

나의 아저씨는 나의 아저씨의 콧머리를 우비고 앉았다.

아랫턱에 수염이 몇가락 숭숭 나왔다.

바람이 불일 때마다 아저씨의 수염은 蘭草를 그린다.  
「四君子」를 조와하는 아저씨는 「四君子」를 아저 못한다.

아저씨는 지저분—하게 허트러진 活字 속에서 傳統을 치를 수 있느냐?

捕虜.

—이놈앗! 왜 精神을 못차리고 이런텔 왔!  
新出의 정숙한 先禮.

대구리와, 대구리와, 대구리와, 대구리와, 塹壕 밖을새를 풍기  
는 얼골과, 콧구멍. 기즈른 수염자린.

新出은 유리窓 없는 房에서 先輩를 見學한다.

寂寂히 숨여드는 바람사세는 故鄉의 훈내음새를 실려오는가,  
어둠검검한 房.

췌멘트벽에 젊은 士官은 손톱을 갈고 있다.

用途를 잃은 勳章이 下士官의 가슴에서 활명의 짓듯이처럼 느러졌다.



上官은 下官의 傷處에서 코코야를 찰는다.

그렇타!

弱한 者일수록 간디가 될 수 있다.

간디.

간디.

신발창을 뜨더먹는 간디는 차라리 염소를 부러워한다.

戰線에 정을박은 鐵兜.

煙幕은 第一線에 模範工場村을 세우고,

나는,

나는,

小뿌르조와지의 아들이다.

획—획—획—

나는 心臟이 弱하다.

나는 小뿌르조와지의 아들이다.

장기쓰汗이 北部戰線에 물밀 듯 미리 나온다.

項羽氏는 수염에게 倒立運動을 命한다.

렌즈, LENZE.

렌즈.

新聞記者의 活躍. 活躍.

急流에 고기 튀듯 튀는 記者의 手腕

한 녀석에게 말(馬)과 말(馬)과, 말(馬)과, 말(馬)과, 창, 칼, 방패.

잡옷. 투구. 활. 전통. 시위.

타.....타.....타.....타트.....

敗遣(走)뎐이 도리스며 웃는다.

「그렇타, 나는 이런 (녀)색들만 있다면 現代의 흰 텐셔도 될 수 있다.

少年詩人은 피테 詩人을 우셔준다.

타, 타, 타, 타,

草兵도 科學의 偉大性만은 時代性만은 똑똑히 알고 있다.

이놈과 이놈

이놈과 이놈

저놈과 저놈,

저놈과 저놈

팔낭개미를 돌리고 가는 偵察機가 코우슴을 치며 爆彈을 뿌린다.

—飛行機에 裝置된 無線電信.

「나는 이제 큰 功을 일었다. 勳章 한 두어개만 特別히 鑄造하여라.」

見本無代進呈.

見本無代送呈.

(나는 어느 詩人이 석낭에 毒瓦斯 냄새를 풍기며 日常의 常識으로 그것을 區別하여 適當하게 防備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戀愛를 할터 먹는 詩人.

窒息性毒物=鹽素. 호스겐. 지호스겐.

糜爛性毒物=로스트(佛名이페릿트). 루이싸이드.

催淚性. 재채기를 하도록 하는 性質의 毒物.

=臭化벤질. 鹽化베르린. 鹽化아세도페논.

(요파의 抒情詩들은, 彈丸의 炸裂과 함께, 不完全한 防毒面을 透過케 하여 재채기와 눈물을 흘리도록 만드려, 防毒面을 벗지 안이치 못하게 하여, 이 때를 타서 致死的인 激烈한 毒瓦斯를 配達하는

것이다.) 지페니엘 靑化砒素. 全鹽化砒素.

一分間の 致死. 아담싸이드.

「이저씨의 번쩍이라는 턱을 어느 化學者가 探照燈으로 製本하였다.」

病院.

들것. 들것. 들것. 들것. 들것. 들것.

赤十字旗.

催名判官의 榮職을 이든 軍醫.

喪제가 된 看護婦.

발목이 썩어드는 兵丁.

땃 속에 드른 彈丸, 배를 켜이고 잡아내는 彈丸.

軍醫의 鑛山熱.

—負傷兵이오. 목숨이 경각에 있습니다.

헛! 上官!

—.....담배연기.....

—캠플庄.....



—하, 하, 하, 하, 그때는 이죽도 戰爭을 모르나?

—……射를 請하오.

—사러달 希望이 없는 걸, 왜 貴한 캬플을 消費하느냐—말야!

—헛! 上官, 靚舊는 遺言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입을 움질거리며, 애쓰는 脛을 좀 보십시오.

아—上官, 캬플을, 어

서 캬플………군

—비켜! 遺言은 個人的 事情이야.

旗!

平和와 博愛를 달나는 赤十字의 旗.

달나는 旗豐.

봉대를 감은 閻羅國.

(가)—계, 靑色, 메쓰, 注射, 고무掌甲, 탈지면, 간호부.)

靑色圓瓶.

黃色六角瓶. 유리마개.

病!

瓶,

瓶.

病!

靑年야! 너는 戰爭을 하려거든 宗教를 밋어라.

어머니의 편지.

少年志願兵의 鄉愁.

아가! 어서 도라오느라.

여보게!

내 안해에게, 내가 곳까지, 죽는 瞬間까지도, 그대를 부르다 죽었  
다고 傳하여 주게.

친구의 부탁.

鄉愁: 女子를 그리는 鄉愁.

이르는 나 어린 아담을 익이였다.

올타! 자리 비였나니

내, 銃을 꺾그리라.

分別없는 利己主義의 發達.

脫走兵.

「이어, 나는 나의 친구의 계집의 짓통이에 얼굴을 파묻고, 어머니의 품에도 마음껏 안길 것이다.」

天才少年. 十六歲 詩人.

老詩人의 評價 「序詩」

나는 그대(의) 作品에 놀담이 아니노라.

二八, 꽃포기같은 年齡에

네, 진즉이 놀담이노라!

거지 아히눔이 麥酒병 깨어진 유리로 대가리를 문질너주고 돈 한 푼을 맞았다.

瓶.

消毒瓶, 가위.

注射. 注射기가 멧 피우는 噴水. 庭園. 噴水.

—들것에 매여오는 詩.  
—구르미에 실녀가는 詩.

白血球의 睡眠.

農夫는 밭을 멈췄다.

黃昏은 억개를 높이고

—鐘소래 들녀오느냐?

간,

까악, 까악 까악, 까악,

이제.

吉鳥 가머귀페는 죽어가는 저녁노을을 춤추고 있다.

<몽툭한 주둥이에 찍혀 울리는 송장의 쫓가.>

地圖의 빨간 줄. 파란 줄.

去勢 當하는 黃色. 노란빛 地所.

試驗管 속에 담기여 熱을 맞는 國勢圖.

時計추와 함께 振動되는 過去.

現在. 現在를 갈기먹는 現在.  
 우리에게 現在가 어디 있느냐!  
 時間을 타고 나드리는 報告書. 命書. 秘(秘)密電通. 秘密電報.

電送寫眞.  
 報告書.

一分.

三百六十個 發射!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타,  
 飛行機의 爆音. 列車砲.

單葉, 複葉, 三葉의 飛機.

부용— 병— 병—

愛國心을 메워주는 將舍,

愛國心을 메고 죽는 兵士.

單肉砲身, 複肉砲身.

깨스린, 피의 嗅氣.

말발꿈.

말발꿈, 발꿈, 꿈, 꿈, 꿈, 꿈, 꿈,  
 騎兵用의 三吋七 榴彈砲.

—파의 구르는 鄉愁. <귀를 잘는 蒙古兵.>  
 四十二センチ. 砲口. 砲口.

軍旗,

忠實한 記錄. 총미즌 자욱. 발꼬린내. 입구린내.

—鐵橋의 流失.

—蕪舟에 依한 渡河, 軍用橋의 架設.

放牧展覽會.

끈머러진 脚絆. 쭈그러진 변또상자, (地下三千尺에선 應當, 나폴

레온 三世가 두 팔을 벌니여 쭈그러진 알미움을 어루만졌을 것이  
 다.)

머러지나간 구두. 구두꽃백이. 기관총 꼬다리.

고향을 잃은 단추. 코가 말너부튼 휴지

寫眞.

사진,

女子의 사진

계집의 사진

어머니의 寫眞.



(죽어 넘어진 兵丁의 처고리엔 멧군대(대)에 傷處가 市街圖를 鳥  
瞰하고 있다)

移動風景.

집시타일의 짐세기.

國境警備隊.은 銃을 겨눈다.

「누구냐!

.....

누구냐!

.....

솔태냐!

.....

<비틀거림을 허다 싶이 어름편을 달녀 오든 사나히가 쓰러졌  
다.>

랑!

.....

랑!

랑!

靈魂의 午後.

黃昏의 葬禮式을 舉行한다.

길눅, 길눅, 길눅. 우름에 채한 기럭이떼가 상여를 메고 간다.

黃昏.

黃昏은 기럭이떼와 함께 永久히 이 地에서 遂(追)放당할 수 있을까?

戰場의 밤이 로맨틱한 개선의 꿈은 아니다.

軍用犬의 追憶.

우슴.

戰爭에서 우는 놈처럼 毒한 놈은 없다.

싸네마를 求景하는 兵士들,

追憶의 스크린

記憶力の 正確性.

科學者는 研究室을 뛰치나와 이곳으로 오느라.

棺속으로 自進하야 드리간다.

—췌깃 소리.

—세계 맞추는 소리.

散亂한 들판에선 퍼—런 불뚱을 튀기고 있다.

피직!

피직!

피직!

이놈들이 갯뚱불이란 말이나?

밤의 눈섬을 할는 詩人.

네온을 버린 사나히가 뒷골목으로 드러간다.

(늑은 거지가 늑은 黃昏을 질머지고 제 그림자를 밟으며... 밟으며...)

(黃昏과 함께 흐미—하케 지여지는 그림자를 밟으며... 밟으며...)  
(그림자와 함께 흐미—하케 지여지는 自己의 生命을 밟으며... 밟으며...)

늑은 詩人은 쓰레기와 함께 置分한 세멘트 自敘傳을 쓴 사람들, 自宣(?)傳을 한 사람.

루—츠가 참회록을 訂正하겠느냐?

賣文家は 두더쥐의 눈이다.

아이에 懷中電燈도 밝히지 마라.

星光조차 흐릿—한 밤.

軍用犬의 追憶

戰場의 밤이 로맨틱한 개천의 꿈은 아니다.

비둘기가 花瓣과 달녘다.

軍隊는— 이제 祝砲를 울니라

피직.

각.

지, 지, 각.

비나리는 밤의 燐光.

線香의 曲線은 배암치를 나뭇나름, 그리고, 그리고, 얹고, 얹고,  
헤드라이트와 HEADLIGHT.

Go!

거(북)의 등에 촛불을 달너라.

STOP!

거북(龜)의 등에 촛등을 떠러푸러라.

—나두 히틀러쯤은 될 건데, 아사라—  
총 한방에 피울일세. <熱血의 愛國青年>  
骸骨과 骸骨의 對話.

—蔣介石.

—「是氣所磅礴萬古凜烈存,  
當其貫日月生死安足論」.

나는 忠臣으로 죽은 忠臣 허라버지의 忠臣의 詩句를 崇拜하였드라  
네.

—요플,

—요플,

—愛國도 저를 爲한 愛國인 것을……

—난 내 인헤가 보구싶어 죽켓네.

—홍, 그년, 그년, 그년은, 지금 었던 영감님과 맞부터 지랄을 할

는지도 모르켓고나!

—나는 어리석었다.

아— 아이어, 나도 어리석었다.

—그렇타! 나도 늦게야 肉體의 必要性을 늦기였다.

—꿈명석같은 껌메기라고 그냥 부쳐들 것을……

후유—

骸骨들의 咀咒. 피로.

被(疲)勞의 中毒.

피로.

被(疲)勞는 생쥐와 같이 希望을 갈기 먹었다.

이 따의 특기는 아테로 갖는다!

너는 좀더— 빨리 뉘겨거든, 그 묵어운 귀를 잘너버려라.

(CUP CUP CUP CUP CUP)

취취취취취

너는 도야지의 우슴소리를 들어 봤느냐?

암도야지는 꿈을 꾸느냐라.

꼬부라진 꿈을 꾸느냐라.



犧牲(도아지, 닭, 개, 염생이. 소, 말, (쇠가죽은 말가죽보다  
좀 더) 구두안 울타리에도 쇠가죽이 밧싸다.)

七面鳥가 죽는다.

죽음은 肥料다.

그렇다! 肥料가 잘 썩기를 바라는 것은 밀려오는 時代性,  
現實性이다.

바닷물에 떠가는 갈매기.

갈매기같은 詩人은 肥料라도 될 순 없을까?  
갈매기의 屍體.

미련한 바다는 밧가죽을 출석어린다.

四十二種. 海岸砲의 祝砲.—固定砲架留彈砲.  
平射.

曲射.

戰鬪艦. 喇叭. 부어오르는 樂手의 주둥이.  
巡洋艦, 驅逐艦, 羅針盤, 十九吋, 口徑.

列과,

列과, 列과, 列과,  
異國情緒에 담긴  
大砲의 거문 팔들은 두 팔을 버리고 敵艦을 환영한다.  
魚雷.  
魚雷. 魚. 雷.  
물결. 물결.  
물결.

龍宮을 그리워하는 水兵이 있느냐?  
旅行을 즐기는 水兵.

水晶의 丹柱와 丹柱, 羅馬式의 宮殿.  
人魚.

龍女. 비늘이 눈부시는 커드렁이.  
異端者!

너는 龍都엘 갈 적엔 두 다리를 잘르고 가거라.

歸化!

勿論. 洪·尹·吳 三忠臣은 明나라가 안이면, 거북의 등에 업혀  
여 도라와야 할 것이다.

龍宮의 잔채.

맘몬아!

너는 忠孝烈士의 歡迎門을 높이 세우라.

名譽의 戰死.

驅逐艦의 亂舞.

彈丸과 彈丸이 氣候鳥처럼 나르고,

리—더—가 되고피하는 十九吋의 巨門.

계집의 첫꼭지를 할는 詩人아!

너는 그래도 夕潮에 갈매기를 더듬느냐.

戰死.

鳴鏑(鳴)의 戰死.

그래도 허뵈적어리는 도어지는 목숨이 부뵈고나.

그렇타!

家畜에게 특이 있다는 것은 짧은 冬眠이고나.

밤이란,

밤이란,

傳統의 藝術品을 鑄造하는 抒情詩人의 꿈이다.

배암

—긴 冬眠의 꿈.

배암의 가는 헛바닥, 가는 허리, 가는 궁둥이, 가는 꼬랭이.

칭, 칭, 감어죽이는 배암의 꼬리.

鐵條網의 刺戟.

鐵條網, 鐵條網. 電氣에 醉한 鐵條網과 鐵條網들이 악개동모를 하고 뱀을 돈다.

질척지근한 陰氣.

두더취를 志望하는 工兵.

坑道 方向探知機.

地下戰!

敵의 坑道를 엿듣는 地中聽音機.

決死隊에 뽀허거든 下等兵이 기슴을 돌렸다.

삼과 삼. 팽이. 팽이. 삼과 삼. 鑿岩器.

「그렇타!

울타리 넘어 果樹園엔 셋밥안 生命이 주렁주렁 열녔다.

勳章의 어머니.

赤外線通信. 軍用犬. 雙眼鏡.

鐵兜.

防彈具(海老)

투덜투덜한 低氣壓이여!

누가 짜—내리침과 性交를 하여 주겠느냐.

미친 고래처럼 요동하는 潛航艇.

포푸리의 卒倒.

燈臺가 쓰러진 밤은 아지못할 不吉에 싸웠다.

뒤흔드는 그의 穹窿이.

水雷.

水雷. 水雷의 亂射!

짜—내리침의 亂産.

짜—내리침은 發酵素의 加減배이다.

홀몬과 홀몬과 홀몬,

이이에,

너는 빠이칼에서 失戀을 하지 말아라.

벨땡이 문혀진다.

原稿紙가 찢겨졌다.

해버라기의 失戀.

이기가! 닐랑 詩人이 되지 마라라.

해버라기 같은 詩人은 손꾸락을 빠리먹다가 강이저를 더리고 온다.

꿈독에 빠쳐주는 놈이 幸福이나.

勳章을 차고 죽는 놈이 幸福이나.

詩는 五錢만 가져도 科를 풀 수 있다.

위이—

위이—

위이—

위이—

木乃伊와 木乃伊가 두박두박 거리나와 두박두박 握手를 한다.  
—에 집트의 再現을 바란다.



—그렇타! 우리는 우리의 事業을 爲하여 生殖器을 잘나야 한다.

哀古(告), 哀古, 哀古, 哀古, 哀古, 哀古, 哀古, 哀古, 哀古, 哀古.

百日紅이 百日만에 시드릿구려,

나뻬가 죽엇구려.

매암이도 허물을 벗는 구려.

生이란, 이런가요.

상체가 운다.

센터멘탈이 운다.

늙은 詩人이 메고 가는 샷갓가미 속에서 센터멘탈이 쪽쪽어린다.

熱砂!

山으로 불녀 山으로 싸히는 熱砂.

流郎(浪)의 별가루,

그렇타! 志望者는 速히 이곳에 生埋를 當하라.

<機會를 잇는 달老(考)古學者는 너의들의 化石을 博物館에 간  
직할 것이다.>

標本이 되고 시푸나!  
標本이 되고 싶으나?

음·푸리우.

「일미간 六法全書엔 輪姦에 對한 條目은 病들 것이다.」

—賣笑婦의 말—

부르튼 皮부에 紋(紋)의를 놓이준 雜兵들의 指紋(紋),

決死隊의 개별.

—침이 말는 년.

—입술이 튼 년.

賣笑婦는 꿈 서되도 맞지 못하는 암도야지다.

病든 도야지.

도야지를 奈落으로 떠러트린다.

落下傘. 펼쳐지지 안는 落下傘.

二十億 燭光의 太線.

探照燈이(새로 시은 萬年筆과 같이) 깨끗한 黑板을 더럽혀 놔는다.

音響信號機.

電車內에서 奔走히 活躍하는 喉頭受話機와 脣頭送話機.

—混信을 利用하는 秘密한 電信. 電話.  
—周彼(波)數 高調에 依한 秘密한 電話. 電信.

聖壕掘鑿 自動車의 散步.

防楯을 꿰뚫는 徹(鐵)甲彈.

煙幕의 信號

編隊飛行航路의 大舉襲來!

「照準臭는 火炮의 生命이나라,

地中軍隊의 戰鬥에 協力한은 爆擊機.

리벤스뿌로젝터—

스트—크, 모—터. 電氣發火에 依한 射擊.

手榴彈이 싸가지고 온 毒瓦斯.

燒痕彈에 뒤밧쳐— 드러오는 瓦斯彈.

아……

루……

가……

리……

이루카리性的의 大大的 必要!

化學者가 양젯물을 잔뜩 치먹는다. 바람을 타고 온 毒瓦斯가 함  
속 안긴다.

배암은 개고리를 넣고도 군소리를 하는 놈이야!

그렇타! 戰爭이 滿足한 적은 없다.

注文을 머무는 化學者의 創作.

「殺人光線法全集」全5冊.

—目次

第一卷. 光線의 應用.

第二卷. 電波의 應用.

第三卷. 紫外線의 應用.

第四卷. 現下學界에서 알지 못하는 放射線의 必要와 應用(一).

第五卷. 現下學界에서 알지 못하는 放射線의 應用(二).

「尾言」戰爭은 불가살이다.—

大提學 「殺人光線」氏는 戰爭을 키우기 爲하여 戰爭의 乳母도  
못도 한다.

—大砲를 달퀴라!



—軍艦을 달퀴라!

「우리에기 자장 잘두 잔다.

뒷집개두 꿀꿀 잘두 자구

우리에기 자장 잘두 잔다.」

怪力線(디스·레이)의 活躍報告.

第一次—

人馬 各動物外에 生物을 모조리 녹혔다.

第二次—

飛行機와 自動車의 運轉을 停止시켰혔다. <이는 或시 交通巡查

로 轉向치나 안다 하는 疑心이 있다.>

第三次—

遠距離에서 火藥을 爆發시켰혔다.

第四次—

電信, 電話, 電燈, 其他一切의 電氣施設을 破壞시켰혔다.

第五次—

一切의 可燃體인 火災를 뿌려주었다.

第六次—

電氣輸送時에 金屬線의 代書業을 하였다.

地圖의 破瓜.

桃色姦通.

새끼는 滿朔이 되었으니, 너는 전날, 당기꼬리가 잔등이에 박이  
여 좀이나 不便하였겠느냐

벌서 너는 午前부터 비르는구나.

處女야!

치녀야!

産婆를 불러다 주련?

—홍, 産婆.

—홍, 産婆.

産婆가 고무掌甲을 넣어 얘기를 잡아 빼기에는 너의 純潔性이  
넘어도 부끄러우나?

危태롭진 안니?

얘기는 다시 戰爭을 하기 前까지는 幸福될 것이다. 저녁노을이  
스기전은 幸福이다.



首 府

—首府는 肥滿하였다. 紳士와 같이

세이즘.

輕氣球를 높이 空中에 띄지라.

薇(微)笑는 歷史를 모르고,

눈물은 고인 적이 없다.

戰爭이란 動物은 反芻하는 재조를 가차다.

1

首府의 火葬터는 繁盛하였다.

산미루턱에 드높은 굴뚝을 세우고

자그르르 기름이 튀는 소리

屍體가 타오르는 타오르는 그—름은 맑은 하늘을 어질어놓는다.

市民들은 機械와 無感覺을 가장 즐기여한다.

金빛 金빛 金빛 金빛 交錯되는 靈柩車.

豪華로운 울음(음)소리에 靈柩車는 물리여오고 쫓겨간다.

繁(頰)雜을 尊崇하는 首府의 生命

火葬場이 있는 黃泉고개와 같은 언덕 밑으로 市街圖는 나래를 펼쳤다.

2

덜크덩 덜크덩 貨物列車가 鐵橋를 건늘 제

그는 飽食하였다.

四處여(여)서 雲集하는 貨物들

수레 안에는 꿀꿀거리는 도야지 도야지도 있고

家畜類— 食料品. — 原料. 原料品. 材木. 아람드리 消化되지 않

은 材木들—

• 미발표 유고로 전해지다가 1990년 7월호 《한길문학》지에 발문 게재되었다.

• 여기서 한자 및 한글 표기가 잘못된 것은 발표문을 그대로 제시하고 괄호 속에 원집 (點) 처리를 해서 바로잡았다.